

25.05.16.(금)

즉시 배포

Tel : 02-6788-3201, 3631 / Fax : 02-6788-3629

e-mail : minjooeuljiro@gmail.com

라이더유니온,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정책제안 ...

“배달노동자 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제도개선 시급”

오늘(5/16), 15: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라이더유니온 정책제안식

오늘(5/16)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(구교현 지부장)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(민병덕 위원장)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식을 진행했다.

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, 전성배 서울지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 지부장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. 국회 측에서는 민병덕 위원장을 비롯해 이강일, 임광현, 김남근 의원이 참석해 정책제안을 경청하고, 입법방향을 함께 모색했다.

라이더유니온은 ▲무면허·무보험·무교육 상태로도 배달이 가능한 현행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‘라이더 자격제’ 도입 ▲난폭운전과 장시간 노동의 주원인인 저운임 문제해결을 위한 ‘안전운임제’ 도입 ▲무자격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배달대행사 등록제 ▲불합리한 사회보험 부담해소를 위한 4대 보험 차별 해소 ▲산재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.

특히 이들은 “2023년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이 배달업으로, 사고 80%가 입직 6개월 이내에 발생하고 있다”며 제도미비로 인한 구조적 위험을 강조했다. 또한 “배달 플랫폼이 운임을 임의로 조정해 라이더 간 과잉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, 낮은 기본운임으로 인해 신호를 지킬 여유조차 없는 상황”이라고 지적했다.

민병덕 위원장은 “배달노동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지만, 그만큼의 제도적 보호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” 며 “라이더유니온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. 라이더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오늘 제시된 정책제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” 고 말했다.

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책임의원이자 배민·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의 사회적대화 및 안전교육,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은 “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책제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며 “ ‘안전하게 일하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’ 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

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

[행사 사진]

